

10-29 (통권 제456 호)
2010. 9. 8.

글로벌 산업구조 재편과 우리의 대응전략

VIP REPORT

초 엔고(円高) 시대, 일본의 대응과 시사점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원, 이장균, 이철선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
Tel (02)2072-6236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02-2072-6236)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초 엔고(円高) 시대, 일본의 대응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최근 엔화 초강세의 배경과 전망 1

2. 엔화 강세에 대한 일본의 대응 5

3. 시사점 10

■ HRI 경제 지표 12

■ 최근 엔화 초강세의 배경과 전망

최근 엔화 가치가 급상승하면서 '95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 수준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 다른 주요국 통화의 미 달러화 대비 상승률과 비교하더라도 두드러지는 상승 수준이다. 과거에도 엔고 현상은 있었지만, 최근의 '슈퍼 엔고' 현상은 과거와는 다소 다른 특징이 있다. 우선 '80년대와 '90년대 중반의 엔고 현상은 미국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엔화 강세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엔화 강세는 일본 자본수지 적자의 축소, 일본 경제 펀더멘탈의 상대적 부각, 일본정부의 미온적 대응, 일본 외 시장에서의 투기적 수요 가세 등으로 엔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미국이 경기 회복을 위해 금융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독자적인 환율 시장 개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슈퍼 엔고'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엔화 강세에 대한 일본의 대응

(정책 차원 대응) 일본 정부는 엔고로 인한 경기 침체가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첫째**, 우선 시중 자금 공급을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금융 완화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가전, 주택 등에 대한 에코포인트 제도의 연장 등 내수 시장의 적극적인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상대적인 수출 비중 감소를 유도하고 있다. **셋째**, 도시재생, 지역활성화 사업 등에 대한 공공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도하여 고용 안정과 소비 진작을 도모하고 있다. **넷째**, 상대적으로 엔화 강세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에 대해 긴급 단기자금 지원 등 지원 프로그램 마련과 제도적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등의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와 인재 육성을 강화하여 수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다.

(기업 차원 대응) 수차례의 엔화 상승을 겪으면서 일본 기업들은 수익성 악화 극복을 위한 기업 체질의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첫째**, 생산 부문의 효율성 제고와 나아가 전사 차원의 포괄적인 비용 절감으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둘째**, 생산 설비의 해외 이전 및 부품의 현지 조달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원가 경쟁력을 높이면서 글로벌 경영체제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셋째**, 높아진 엔화 가치를 활용하여 해외 우량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M&A 추진과 투자 확대로 글로벌 사업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넷째**,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제품의 차별화와 고부가가치화로 비가격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엔고에 따른 가격 상승 요인을 극복하고 있다. **다섯째**, 환리스크 관리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수출 결제 수단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 시사점

우리 경제도 수출 의존도가 높고 원자재가 상승, 환율 변동 등 대외 여건 변화에 취약한 경제 구조라는 측면에서, 엔화 강세에 대한 일본의 정책적 대응 및 일본 기업들의 대응 전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책적으로는 향후 원화 강세 국면의 도래에 대비하여 경제 체질의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첫째, 내수 촉진과 고용 안정을 위한 각종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수출과 내수의 균형적 성장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고부가 첨단산업 육성 등 성장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해외 자원 개발과 글로벌 M&A 등 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 정비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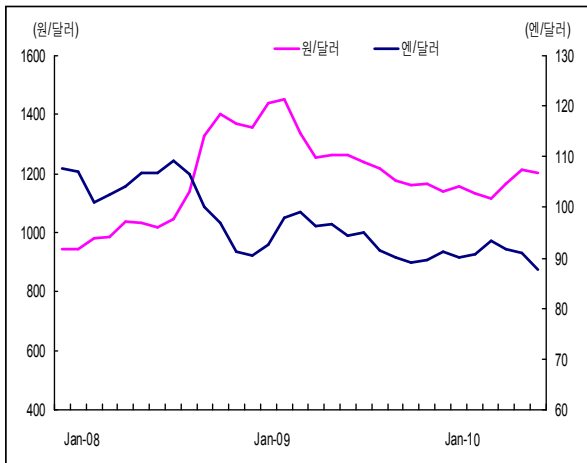
기업 차원에서는 환율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중요하다. 첫째, 전사적인 경영 혁신으로 비용 절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 둘째, 글로벌 아웃소싱과 선별적인 해외 M&A 및 투자를 통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사업 구조 재구축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환 리스크 등에 대한 시나리오 경영을 강화하고, 결제 수단의 다변화 등을 통해 환율 변동에 강한 기업 체질을 구축해야 한다.

1. 최근 엔화 초강세의 배경과 전망

○ 최근 엔화 가치의 추이

- 지난 8월 27일 엔/달러 환율이 84.37엔을 기록하는 등 '95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 수준의 강세를 보임
 - 글로벌 금융위기로 불거진 글로벌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2008년 9월과 비교해 볼 때 20% 이상 엔화 가치가 상승함
 - 반면 원화 가치는 8월 27일 현재 1,196원으로, 2008년 9월 대비 원화 가치가 하락된 대조적인 모습을 보임
- 최근 엔화 가치의 급상승은 미국 달러에 대한 다른 주요국의 통화 가치 상승폭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임
 - 엔화는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한 '08년 9월초 대비 미 달러화에 대한 가치가 21.5% 정도 절상되었고, 올해 들어서도 8% 이상 절상됨 (8/23 기준)
 - 이는 EU 유로의 14.0% 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중국 위안 등 다른 주요국 통화가 크게 변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상 폭이 두드러짐

< 원/달러 및 엔/달러 환율 추이 > < 주요 통화의 미달러 대비 가치변동 >



	일본 (엔)	중국 (위안)	EU (유로)	캐나다 (달러)
'08년 9월초 대비 현재	+21.5%	+0.5%	+14.0%	+0.9%
'10년 1월초 대비 현재	+8.3%	+0.4%	+11.8%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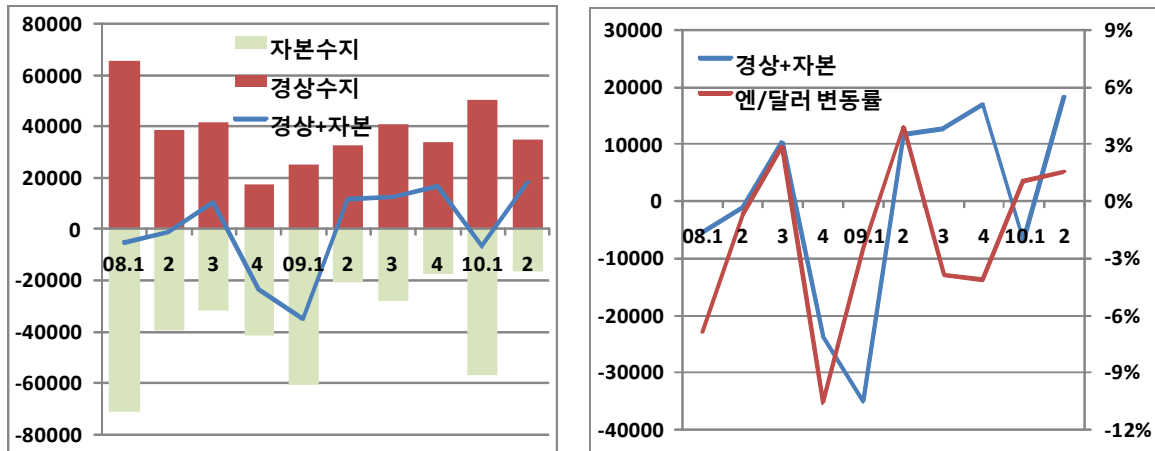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일본은행.

주: 현재는 '10년 8월 23일 기준이며, (+)는 평가 절상, (-)는 평가 절하를 의미.

○ 최근 엔화 강세의 원인

- 최근의 '슈퍼 엔高' 현상은 첫째, 최근 외화의 일본 내 유입이 증가하는 시장 수급 상황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일본의 경상+자본 수지는 2010년 1/4분기를 제외하고 2009년 2/4분기 이후 지속적인 흑자를 보이고 있음¹⁾
 - 이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기보다 일본 내 외화의 유출 통로인 자본수지 적자폭이 2009년 2/4분기 이후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임
 - 2010년 2/4분기중 경상수지는 약 3조 5,000억엔 흑자이며, 자본수지는 약 1조 7,000억 엔 적자를 기록
 - 실제 분기별 경상+자본 수지 폭과 엔/달러 환율 변동률을 살펴보면 2009년 하반기를 제외하고 두 변수간에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일본 국제수지(억엔) 및 환율변동률 추이 >



자료: 일본은행, 한국은행.

- 둘째, 경화(硬貨) 3국중 일본 경제가 미국과 유로존보다 상대적으로 펀더멘틀이 양호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일본의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우선 미국 경제의 경우

1) 통상 일본의 매년 1/4분기는 큰 폭의 자본수지 적자로 전체 경상+자본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일본 고유의 3월말 회계 기준 문제로 인한 일시적 자금 이동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최근 FRB가 미국 경기 전망을 하향 수정하고 추가적인 금융 완화책을 시사하는 등 미국 경제의 회복세 둔화가 우려되고 있음

- 또한 유럽 일부 국가들의 재정 불안과 중국의 성장세 둔화가 글로벌 경기의 침체 국면으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달러화나 유로화 표시 자산의 가치 하락을 우려하여 엔화에 대한 선호가 증대된 것이 엔화 강세의 배경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음
- 예를 들어 중국의 일본국채 순매수 금액은 2008년 상반기 1,278억엔, 2009년 상반기 -45억엔에서 2010년 상반기 약 1조 7,327억엔임(일본 재무성)

- 셋째, 일본 정부의 외환 투자 통제 정책의 부작용과 환율 변동에 대한 미온적 대응도 엔화 강세의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음

- 일본 정부는 외환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개인의 외환 투자 증거금 배율을 하향조정하는 정책을 펼침²⁾
- 8월 이후 관련 데이터 미발표로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이러한 투자 요건의 강화로 엔캐리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엔화수요가 늘어났을 것으로 추측됨
- 또한 최근 엔화 강세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행이 유동성을 확대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그 규모가 환율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 할 것으로 평가

- 넷째, 이러한 요인들에 덧붙여 일본 외 시장에서의 투기적 수요도 엔화 강세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CME (시카고상품거래소, Chicago Mercantile Exchange)의 엔/달러 환율 선물 시장의 포지션은 5월말 1만 238계약 순매도에서 8월말 4만 9,904계약 순매수로 전환

< CME의 엔/달러 선물순매수포지션 >

(단위: 계약)

	'10.1월말	2월말	3월말	4월말	5월말	6월말	7월말	8월말
순매수 계약	-4,347	1,717	10,161	-49,777	-10,238	3,630	29,921	49,904

자료: 블룸버그.

2) 일본 금융청은 현재 100배까지 적용 중인 외환증거금 배율(투자금액/증거금)을 8월 1일부터 50배로, 2011년 8월 1일부터는 25배로 하향조정함.

○ 영향과 전망

- 향후 엔화 강세가 장기화된다면 최근 들어 조금씩 회복 조짐을 보이던 일본 경제가 다시 엔고에 따른 경기 침체로 들어설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음
 - 일본은 올해 2분기의 실질 GDP 성장률이 0.1%(연율 0.4%)에 그쳤으며, 민간 소비 및 수출도 최근 점차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
 - 최근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닛케이 평균 주가는 8,000 대로 떨어지는 등 엔화 강세로 인해 경기 하락이 표면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가 궁극적으로 투자 부진과 고용 불안,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저성장의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음

< 일본 경제의 최근 주요 지표 추이 >

(전년동기 대비, %)

주요 지표 (실질)	2009년			2010년	
	4-6월	7-9월	10-12월	1-3월	4-6월
GDP 성장률	2.5	-0.3	1.0	1.1	0.1
민간 최종 소비 지출	1.3	0.6	0.7	0.5	0.0
정부 최종 소비 지출	0.2	0.1	0.7	0.6	0.2
재화·서비스의 수출	10.4	8.5	5.7	7.0	5.9
재화·서비스의 수입	-5.0	6.3	1.5	3.0	4.3

자료 : 일본 내각부(2010.8.16) 속보치.

- 미국 경제의 더블딥 가능성과 글로벌 경기의 회복세 둔화가 우려되고 있어, 당분간 엔화 강세 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의 엔화 강세는 일본 경제의 체질이 좋아진데 따른 절상이라기보다 세계 경제의 부진 속에 일본 경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됨
 - 미국은 경기 회복을 위해 당분간 금융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일본의 독자적인 환율 개입 정책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일본 정부 및 대부분의 기업들은 올해의 엔/달러 평균 환율을 당초 90엔 전후로 예상하고 있어, 엔화 강세가 장기화된다면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임

2. 엔고(円高)에 대한 일본의 대응

○ 정책 차원의 대응

- (금융 완화) 시중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여 시장 금리 인하를 촉진하는 금융 완화 정책을 추진함
 - 일본은행은 지난 8월 30일, 현재 운영 중인 자금 공급 잔액을 20조엔에 덧붙여 추가적으로 10조엔 정도를 공급하기로 결정함
- (내수 촉진 유도) 내수 시장의 적극적인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상대적인 수출 비중의 감소를 유도하고 있음
 - 민간 소비를 촉진하고 적극적인 내수시장 개척에 주력함으로써 경기 침체의 장기화를 막고 무역수지 불균형에 따른 대외 이미지 개선을 도모함
 - 최근에는 녹색 성장을 추진하면서 자동차, 가전, 주택 시장 등에 대한 에코 포인트 제도의 연장 시행과 감세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음
- (공공투자 확대) 도시 재생, 지역 활성화, 간병 및 관광사업 등 정부 주도의 공공사업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고용 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있음
 - 엔고 지속에 따른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 부문의 투자를 확대하여 고용 불안정의 해소를 추진함
 - 최근에는 재정 여력의 제약과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국책 사업의 재검토 등으로 공공투자 보다는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있음
- (중소기업 지원 강화) 수출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엔화 강세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함
 - 경기 둔화와 엔화 강세에 따른 채산성 악화에 고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긴급 자금 지원 등 정책적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해외 사업의 공동 진출을 위한 컨소시엄 형성을 지원하는 한편, 각종 제도적 규제의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산업 구조 고도화 추진)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수출 제조업 중심에서 고부가 첨단 산업의 육성과 시장 선점 등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함

- 최근 일본은 중장기 국가 발전에 관한 '신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성장 산업의 육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함
- 첨단 기술 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산학 연계의 활성화 및 인재 육성을 통하여 미래 성장의 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음

[참고] 일본의 긴급 경제 대책 (2010. 8.30)

○ (개요) 일본 정부는 최근의 엔화 강세가 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 정책의 완화를 골자로 한 추가적인 경제 대책을 발표

- 디플레이션 탈피를 당면의 목표로 하면서, 엔고 및 해외 경제 여건 등의 경기 하강 리스크에 대한 대응과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신성장전략'의 조기 추진에 중점

○ (5대 대책 분야) 고용, 투자, 소비의 기반 조성, 지역 방재 대책, 규제 개혁 등

- (고용 기반 조성) 청년층 고용 대책에 역점을 두면서 육아, 의료 및 간병, 환경 등 잠재 수요 분야의 공공 역할 활용과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을 확대
- (투자 기반 조성) 엔고의 장기화에 의한 지역 산업의 해외 이전 등 산업 공동화를 막고, 중소기업 지원과 국내 투자의 재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
- (소비 기반 조성) 경기 부양 효과가 큰 주택 및 가전 분야의 에코포인트 제도 연장을 통해, 고용 증가, 소득 증가, 소비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확립
- (지역 방재 대책) 국민 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내진화(耐震化), 게릴라성 호우 대책 등 긴급 방재 대책을 수립
- (규제 및 제도 개혁) 수요 및 고용 창출의 시각에서 제반 분야의 규제 완화 및 제도적 개혁을 신속하게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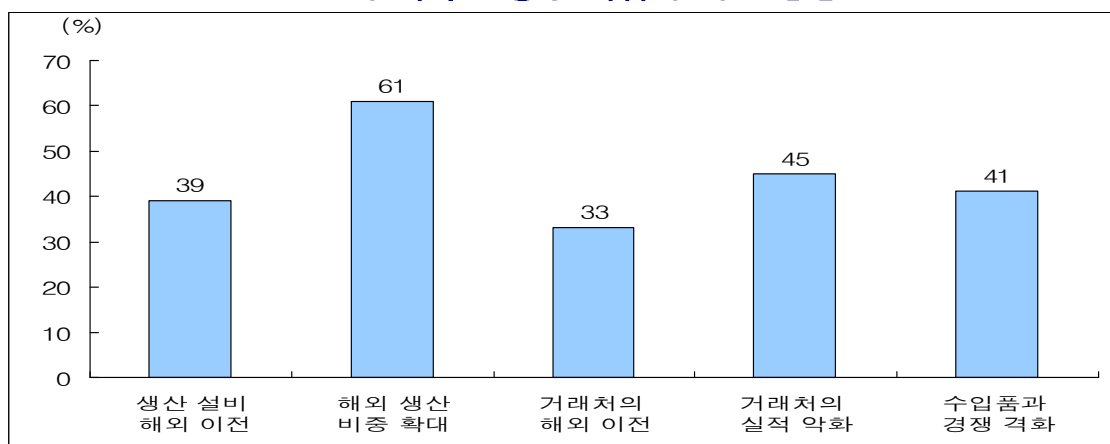
○ (신성장전략 추진 가속화) 당면의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한 긴급 대책과 더불어 신성장전략의 추진 가속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

- '신성장전략 실현 추진 회의(가칭) 설치 : 관계 부처, 경제계, 노동계 등 참가
- '고용 전략 대화 개최 : 「고용·인재 전략」의 추진 가속화를 유도
- 국내 투자 촉진 프로그램 마련 : 기업의 설비투자, 기술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 등
- 2011년도 예산 편성 : 소비 수요 및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시책에 중점 배분

○ 기업 차원의 대응

- (비용 절감) 생산 부문의 비용 절감, 나아가 전사적인 경영 혁신을 통한 포괄적인 비용 경쟁력 강화를 추진함
 - '80년대에는 엔고에 대응하기 위해 주로 생산 설비의 최소화, 작업 공정의 간소화 등을 통하여 운영비용의 절감에 주력했음
 - '90년대 이후에는 기업의 가치사슬 전체의 효율성과 스피드를 제고하는 전사적 혁신 체제 확립을 통한 총체적 비용 절감을 추진함
 - NEC의 경우, 제품 생산의 리드타임 단축을 위한 SCM을 구축하면서 인기 제품의 판매 차질로 인한 기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음
- (해외 생산 확대) 생산 설비의 해외 이전과 부품의 해외 조달을 확대하여 엔화 상승에 따른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영체제를 구축함
 - 주요 제조 대기업들은 생산 거점의 해외 이전과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하여 원가 절감뿐만 아니라, 현지 시장의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 개발을 도모함
 - 최근 경제산업성이 실시한 조사³⁾에 따르면, 엔고가 지속될 경우 제조 기업의 40%가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60%가 해외 생산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응답함
 - 도요타는 2000년대 이후 해외 생산을 늘려 왔으며, 최근 중국, 브라질, 미국 등의 해외 생산 비중을 더욱 확대하고 국내 생산 비중을 점차 축소하기로 함

< 엔고가 지속될 경우 기업에 대한 영향 >



자료 : 경제산업성, '엔고의 영향에 대한 긴급 설문' (복수 응답)

3) 경제산업성은 지난 8월 27일, 수출 제조 기업 102사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함.

- (글로벌 M&A 추진) 높아진 엔화 가치를 활용하여 해외 우량 기업에 대한 M&A를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경영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함

- 유망 사업 분야의 글로벌 M&A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글로벌 경영 역량 강화에 주력함
- 2010년 1~8월 동안, 일본 기업에 의한 해외 M&A는 전년동기대비 금액 면에서 약 2배 증가한 2조4,840억엔, 건수 면에서 36% 증가한 312건으로 나타남⁴⁾
- 최근 일본전산은 미국의 애머슨일렉트릭의 모터 사업부를 인수하기로 하는 등⁵⁾ 올해 들어 일본기업들의 글로벌 M&A 및 해외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음

< 최근 일본 기업의 M&A 실적 추이 >

구분	M&A 금액 (백만 엔)				M&A 건수			
	In-In	In-Out	Out-In	합계	In-In	In-Out	Out-In	합계
2004년	9,490,279	1,882,779	743,432	12,116,490	1,680	320	211	2,211
2005년	9,536,022	1,652,396	553,226	11,741,644	2,129	411	185	2,725
2006년	5,836,523	8,608,978	643,671	15,089,172	2,174	421	180	2,775
2007년	6,608,198	2,819,202	3,018,750	12,446,150	2,020	367	309	2,696
2008년	4,619,351	7,431,159	469,211	12,519,721	1,824	377	198	2,399
2009년	3,737,844	2,799,449	702,995	7,240,288	1,520	299	138	1,957

자료 : 일본 내각부, 경제사회종합연구소, '내외 M&A 사정 조사 연구 보고 2010'

- (비가격 경쟁력 강화) 엔고에 따른 가격 상승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제품의 부가가치 향상으로 수출 및 내수 시장에서의 비가격 경쟁력 제고에 주력함

- 제품의 디자인 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의 기능 향상을 추구하여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엔고에 따른 채산성 악화를 극복함
-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을 통하여 소비자의 눈높이에 부합되는 제품 차별화와 글로벌 브랜드 구축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함
- 히타치는 '90년대 중반, 30대 주부를 타겟으로 한 '야채 중심형 냉장고'를 출시하면서 내수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음

4) 마이니찌신문 (2010.9.2) 보도.

5) 일본경제신문 (2010.8.18) 보도.

- (리스크 관리 강화 및 결제 통화 다변화) 환율 변동에 대한 리스크 관리 등 위기 관리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수출 대금의 결제 수단 다변화를 추진함
 - 수출 대금의 달러 결제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면서, 특히 올해 들어서 엔화나 위안화 등 달러 이외의 결제 통화 비율을 점차 높여 나가고 있음
 - 환 리스크뿐 아니라 대내외 환경 급변에 대한 상시적인 조기 경보체제 구축 및 대응 매뉴얼 마련 등으로 위기 상황에 대한 경영 체질 강화에 힘씀
 - 마쓰시다의 경우 선물환 등 환위험관리 기법을 활용하여 99~2003년에 엔고에 따른 수익 감소분을 20% 이상 개선하는 성과를 달성함

< 일본의 수출입 결제 통화 비중 추이 >

(단위 : %)

구분		수출				수입			
		달러화	엔화	유로화	기타	달러화	엔화	유로화	기타
2004년	상반기	46.8	40.1	9.4	3.7	68.0	25.3	4.7	2.0
	하반기	47.5	40.1	8.9	3.5	69.5	23.8	4.6	2.1
2005년	상반기	48.2	39.3	8.7	3.8	69.6	24.1	4.4	1.9
	하반기	50.1	38.4	8.0	3.5	72.1	22.1	4.0	1.8
2006년	상반기	49.8	38.5	8.2	3.5	73.4	21.2	3.8	1.6
	하반기	51.3	37.1	8.3	3.3	73.0	21.3	3.9	1.8
2007년	상반기	49.9	37.9	8.7	3.5	72.8	21.4	4.1	1.7
	하반기	49.3	38.7	8.4	3.6	73.5	20.9	4.0	1.6
2008년	상반기	47.8	40.3	8.5	3.4	73.9	21.1	3.5	1.5
	하반기	49.8	39.4	7.6	3.2	74.7	20.7	3.1	1.5
2009년	상반기	49.2	40.2	7.2	3.4	70.1	24.6	3.6	1.7
	하반기	49.8	39.5	6.7	4.0	70.5	24.2	3.6	1.7
2010년	상반기	48.6	41.0	6.3	4.1	71.7	23.6	3.2	1.5

자료 : 일본 재무성.


3. 시사점

○ 원화 강세 국면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

- 첫째, 내수 시장의 기반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및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야 함
 -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로 인해 원자재가 상승, 환율 변동 등 대외 여건 변화에 취약한 경제임
 - 따라서 내수 기반을 확대하고 고용 안정을 통한 가계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원화 강세로 인한 수출 둔화와 경기 위축에 대비해야 함
- 둘째, 수출과 내수의 산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내수와 수출의 균형적 성장을 통한 경제 체질의 강화에 주력해야 함
 -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문의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출에만 의존하는 경제 구조는 경제 체질의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수출과 내수 산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산업간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수출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전후방 산업의 기반 확충 및 연계를 강화해야 함
- 셋째, 녹색 산업 등 고부가 첨단 산업의 지속적 육성으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한편, 국내 자본의 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요구됨
 - 중장기 전략에 입각하여 녹색 산업 관련 고부가 첨단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R&D 투자와 인재 육성을 통하여 미래의 성장 기반을 확충해야 함
 - 해외 자원 개발 및 글로벌 기업에 대한 M&A 등 해외 투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규제 완화 등 제도적 기반 정비가 필요함

○ 환율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인 경영 체질의 개선이 중요

- 첫째, 전사적 차원의 포괄적 비용 절감과 고부가가치화를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주력해야 함
 - 글로벌 경쟁 격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사적 원가 절감은 물론, 고객의 니즈에 부합되는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는 필수적임

- 비용 절감에는 한계가 있어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 개선,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 및 사업 구조의 혁신 등의 부가가치 창출이 필요함
- 둘째, 글로벌 아웃소싱과 선별적인 해외 M&A 및 투자 등을 통한 사업 구조의 재구축이 필요함
 - 성급한 M&A 및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은 국내 고용 환경의 불안정과 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내수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글로벌 아웃소싱을 통한 원가 절감을 도모하고, 해외 유망기업의 선별적 M&A 및 투자를 통하여 글로벌 경영체제를 구축하는 단계별 접근이 필요함
- 셋째,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 시스템 확립과 결제 수단의 다양화를 통하여 환율 변동에 강한 기업 체질을 구축해야 함
 - 장기적 선물환 운용 등 인 환율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무 스킬의 지속적인 개발과 함께 시나리오 경영을 강화해야 함
 - 특정 지역, 특정 품목에 편중된 수출을 다변화하는 한편, 기존의 달러 결제 의존도를 개선하고 위안화나 원화로 계약하는 비중을 늘릴 수 있어야 함 

허만율 연구위원(myhur112@hri.co.kr, 02-2072-6236)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구 분		2008 ^P	2009 ^P					2010 ^E			
			1/4	2/4	3/4	4/4	연간	1/4	2/4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2.3	-4.3	-2.2	1.0	6.0	0.2	8.1	7.2	5.3	
	민간소비 (%)	1.3	-4.4	-1.0	0.7	5.8	0.2	6.3	3.7	4.1	
	건설투자 (%)	-2.8	2.8	5.1	4.4	5.0	4.4	2.3	-2.7	2.2	
	설비투자 (%)	-1.0	-23.1	-17.3	-7.0	13.3	-9.1	29.9	29.0	13.0	
대외거래	통관기준	경상수지 (억 \$)	-58	86	131	104	106	427	13	103	130
		무역수지 (억 \$)	-133	30	170	102	124	426	34	156	230
	수출 (억 \$)	4,220	744	904	948	1,040	3,635	1,013	1,211	4,390	
		증감률 (%)	(13.6)	(-25.2)	(-21.1)	(-17.6)	(11.7)	(-13.9)	(36.2)	(34.0)	(20.8)
	수입 (억 \$)	4,353	714	740	848	929	3,231	980	1,055	4,160	
		증감률 (%)	(22.0)	(-32.7)	(-35.6)	(-31.0)	(1.4)	(-25.8)	(37.2)	(42.7)	(28.8)
소비자물가 상승률 (%)		4.7	3.9	2.8	2.0	2.4	2.8	2.7	2.6	3.1	
실업률 (%)		3.2	3.8	3.8	3.6	3.3	3.6	4.7	3.5	3.6	
국제유가 (평균, Dubai, \$/배럴)		94	44	59	68	75	62	76	79	81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3	1,418	1,286	1,239	1,168	1,276	1,143	1,166	1,110	

주: P(Preliminary)는 잠정실적치, E(Expectation)는 전망치.